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추진방향

### Land Reconsolidation for Large Block

허 유 만\*  
Huh, Yoo-man

#### I. 사업추진배경

'76년 이전에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당시의 재정여건으로 사업수준이 낮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농업인력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고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서 기계화 영농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농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1925년 전북 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40ha에 대한 구획정리를 효시로 하여 1945년까지 43천ha를 시행하였고, 1945년 이후 1964년까지는 전란과 국가재정 궁핍으로 인하여 중단하였다가 1965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1970년까지 145천ha, 1976년까지 300천ha, 1994년까지 661천ha를 완료하여 총 논면적 267천ha의 52%, 경지정리 목표면적 902천ha의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45이전	'46~'64	'65~'70	'71~'76	'77~'94
면 적	43천ha	-	102	155	361
누계 면적	43천ha	43	145	300	661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 경지정리된 지역은 집단화된 농지이면서도 시행당시의 재정여건과 농촌노동력, 농지소유 규모 등을 감안하고, 영농기계 및 건설장비의 기종이나 규격 등의 제약으로 사업수준이 낮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다.

필지규모가 600~1,200평 규모로 협소하고, 농로는 아예 없거나 설치되었어도 도로폭이 좁고 부족하며, 용수로와 배수로도 겸용 또는 부족하여 남의 논을 거쳐야 모내기와 수확 및 관·배수가 가능하며 비료·농약 등을 지게로 운반·살포하는 등 농기계 작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생산비 절감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농업생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기계작업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공동영농 등에 알맞

\*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

도록 생산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 2. 추진현황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의 3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200천ha를 2004년까지 완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991년에 전국 8개소의 경지종합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994년까지 매년 1천ha 내외의 경지재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93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경지재정리사업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기술과 자료를 축적하여 왔으나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U.R 이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면서 다행히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이 농어촌특별세 투자대상으로 선정되어 농어촌특별세 재원 15조원의 3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된 1994년 5천ha에 신규로 착수하여 1998년까지 80천ha,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20천ha를 추진하는 등 총 200천ha를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추진 계획>

구 분	목 표	'94~'98	'98~2004
사 업 량	200천ha	80	120
사 업 비	43,000억원	18,920	24,080

## 3.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대형기계작업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규모화 영농에 알맞도록 재정비

경지재정리사업은 필지 규모를 대형화하고 농로를 확장, 정비하며 용수로와 배수로를 분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부지를 조성하고, 환지를 통한 경지의 집단화를 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첫째, 필지규모는 1ha 이상으로 대형화하되, 일률적인 구획 배치를 지양하고 경사도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대·중구획으로 신축성있게 계획하고는 높이도 포구단위(圃區單位)로 동일표고 또는 2~3개 내외의 표고로 하여 대형 농기계작업이 쉽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영농의 규모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포구단위로 논 높이를 계획하고 간이논두렁을 설치하게 되면 추후 영농 규모가 변화될 경우 간이 논두렁을 제거후 같은 논 배미 안에서 영농이 가능하므로 작업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로 폭은 현재의 1.5~4m에서 4~7m로 확장하여 대형 농기계와 농산물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로의 콘크리트 포장도 지반이 안정된 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및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별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용수로와 배수로는 완전 분리하여 매 필지마다 직접 용배수가 가능토록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물 손실을 줄이고 유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거 배수로에 대한 구조물 설치에 농경지 내 지하 배수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어촌정비법에 신설된 창설환지제도를 활용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집하장, 농기계 보관·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부지를 조성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 대상지역 주변의 밭과 마을 등을 연계하여 관련 사업과 종합 개발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 창설환지제도 : 사업시행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공동이용시설부지와 같이 농경지가 아닌 새로운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는 제도

### 4. 문제점과 대책

일반경지정리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크고 공사량이 많아 공사 기간 연장방안 강구 필요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초기 단계이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첫째,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일반 경지정리에 비해 지구당 사업 규모가 크고 구조물 등 공사량이 많아 현행과 같이 가을추수 후 11월경에 착수하여 동절기를 거쳐 이듬해 영농기전인 5월에 완공하기에는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 공사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웃 일본과 같이 휴경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년중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휴경 보상시 ha당 200만 이상의 추가 재원 소요와 휴경에 따른 식량 확보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현시점에서 휴경 보상제도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 설계 등 착수 준비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초기에 착수함으로써 공사기간이 길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농민들은 수로구조물 비율과 객·복토심의 상향조정 등 사업수준을 높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정부 재정여건과 농어촌지역 투자 소요액 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수준 향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사업비 현실화가 이루어 지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함과 아울러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연구하여 사업 내용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극대화 하기 위한 마지막 정비라는 인식하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되는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논에 대한 마지막 기반정비라는 인식하에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조사설계, 시공, 환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직자·시공자·농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 약 력

허 유 만



- 197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
-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토목학 박사
- 1975. 미국 Hawaii대, 코로라도주립대 수학
- 1987. 세계은행 EDI(경제개발기구) 전문가 과정 수료
- 현재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 기반정비과장
- KCID 이사/편집 및 학술분과위원
- ICID 수리시설 현대화 및 보강 분과위원